

“오늘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부결 땀 국회로 몰려갈 것”

광주서 ‘탄핵버스’ 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농민·대안학교 교사·학생 등 지역민 탑승 광주·순천·목포 등 곳곳 뜨거운 촛불집회

“국회는 탄핵 가결 의무만 있다. 탄핵 가결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한목소리로 요구한다. 광주를 비롯한 순천·목포·곡성·화순 지역민들은 이날 오후부터는 촛불집회를 열고 국회의 탄핵 가결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다. 또 광주 시민들은 이날 새벽 국회의 탄핵 가결을 압박하기

위해 ‘탄핵버스’를 타고 서울 여의도로 향한다. ‘탄핵버스’를 타고 국회로 향하는 지역민들은 탄핵안 부결시 횃불을 들고 국회회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장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이번 탄핵버스에 탑승기로 한 고석주(60) 목사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현실을 참을 수 없고, 사랑하는 손자에게 부끄러운 세상을 보여주기 싫어서 서울로 간다”

며 “가결된 이후에는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 그럴 일은 없어 보이지만 만약 부결되면 계속해서 촛불집회에 참석해 시민의 힘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안학교 교사인 서마리아(여·50)씨는 학생 6명과 함께 탄핵버스에 올라탄다. 서씨는 “학급 회의시간에 논어를 공부하던 학생들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탄핵 절차와 과정에 대해 알려주고, 부결된다면 과거의 사례와 민주주의 역사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탄핵버스에 탑승하는 또 다른 시민들도 “탄핵 가결이 비정상적인 나라를 원상

복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평환(50) 광주YMCA 사무총장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국정 유린 등이 세상에 알려지고, 국회 개혁 등 밑바닥에 깔린 요구들이 표출됐다”며 “탄핵을 통해서 그 출구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사무총장은 이어 “촛불이 시발이 돼 탄핵이 가결되는 12월9일은 더 나은 사회, 국가, 세상을 만드는 첫 관문이 될 것”이라며 “탄핵 가결이라는 1차 승리에 머물지 않고 촛불을 통해 모인 개혁 요구를 국가의 비전으로 만들고 그걸 끝까지 실현해 나가는 일로 연결되어야만 우리 사회와 나라가 더 나은 사회와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김용재(47)씨는 “국민이 촛불을 들어 탄핵 직전까지 왔고, 촛불이 없었다면 이 상황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탄핵 찬성을 결정하지 못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탄핵버스에 탑승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가결된다면 국민의 1차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대통령의 탄핵시간을 단축, 즉각 물러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라며 “부결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에 반기를 든 책임을 져야한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재구성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한빛원전 1호기도 격납건물 내부 철판 일부 부식…정밀점검

한빛원전 2호기에 이어 1호기에서도 격납건물 내부 철판이 일부 부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10월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빛 1호기 격납건물 내부 철판 일부에서 부식 현상이 발견돼 정밀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부식이 발견된 곳은 한빛 2호기와 같이 격납건물 상부인 원형 돔과 하부의 경계 부위로, 지상에서 높이 68m 지점이다. 부식으로 인해 철판 두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구멍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전 측은 한빛 2호기 격납건물 내부 철판에서 부식 현상이 발견되자 정비 중인 1호기와 3호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한빛 2호기 격납건물 내부 철판에서는 높이 68m 지점에서 부식 현상과 이로 인한 1~2mm 크기의 미세구멍, 10% 두께 감소 현상이 확인됐다. 내부 철판은 1.2m 두께의 콘크리트 외벽과 함께 방사능 외부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 원전 측은 격납건물 철판이 부식됐지만 안전에 영향은 없으며 전문가에 의한 분석 및 정비를 거쳐 규제 기관 승인을 얻고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빨리 치료해” 병원서 조폭 난동

○…습관성 어깨 탈골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20대 조직폭력배가 “차레를 지켜주세요”라는 병원 측 설명을 듣고 격분, 의료기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 철장 신세.
○…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S파 소속 정모(30)씨 등 2명은 지난 10월 9일 새벽 3시께 광주시 서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어깨가 빠졌다. 어서 치료해달라”는 요구를 의료진이 거부하자 “우리는 건달이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혈압계와 책상 유리 등을 발로 차는 등 1시간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
○…불합한 정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좋은 말로 아픈니가 빨리 좀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순서를 지키려면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의사들의 말을 듣고 순간 화가 치솟았다. 후회한다”며 때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1년만에 재운행 광주 지산유원지 모노레일 타 보니

이음매 노후 흔적…추락 대비 안전그물망 아쉬워

운영사 “안전 문제 없다”

8일 오전 광주시 동구 지산유원지 정상부. 11년간 방치돼 있던 모노레일(관광열차)이 ‘빛고을역’으로 이름 지어진 탑승장에서 10여명의 승객을 싣고 출발했다. 1개 선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모노레일은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덜컹거림이 느껴졌고, 탑승객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기도 했다.
앞뒤로 펼쳐진 광주 도심과 무등산 전경보다는 지상 4~20m 높이에 설치돼 있는 모노레일 구조물과 선로에 더 시선이 갔다. 이 선로는 20년 전인 1990년대 설치된 것으로 재운행을 앞두고 보수공사를 했지만 이음매 부분 등에는 노후한 흔적이 역력했다. 안전장치는 모노레일에 설치된 안전벨트가 전부였다. 혹시 모를 추

락 사고를 대비해 관광리프트 등에 설치돼 있는 안전그물망과 같은 장치는 없었다.
11년 넘게 멈춰있던 지산유원지 모노레일이 안전에 대한 우려 속에 지난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지산유원지 모노레일은 1980년 9월 유원지 입구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1990년대 해발 350m 높이의 현 위치로 이전했고, 1990년대 후반 들어 운영업체의 부도 등으로 운행을 중단하다가 2005년 3월 정식 폐업했다. 시설물이 1990년대 후반부터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모노레일 운영업체인 (주)나경개발은 지난해부터 모노레일 재운행을 추진해왔다. 열차는 교체했지만 구조물과 선로는 보수 작업만 진행한 상황이다.
동구도 시설물 노후화와 안전사고 우

려 등을 이유로 나경개발이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신청한 재운행 허가를 1년 가량 미뤘었다. 지난해 나경개발이 운영하는 관광리프트 사고가 겹치기도 했다.
나경개발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경개발 관계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안전검사에 합격했고, 낡은 구조물은 교체하거나 보강해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안전요원이 항상 탑승하게 된다”며 “1년에 2차례 정기 안전점검을 받고,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운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경개발은 내년 2월까지 시범운행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8일 광주시 동구 지산유원지 모노레일 개통·시승식에 참석한 동구청과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모노레일을 직접 타 보며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1980년대 조성된 모노레일은 지난 2005년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했다가 11년 만에 재운행을 시작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어민들 몰래 어업권 팔아 역대 쟁건 어촌계장 구속

어민들 몰래 어업권을 팔아넘긴 마을 어촌계장이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8일 마을 어촌계 공동발전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인장에 관한 죄)로 어촌계장 정모(57)씨를 구속했다.
영광의 한 마을 어촌계장인 정씨는 지난해 7월 어촌계원들 몰래 어촌계 소유 어업권을 포기하고 받은 기금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어촌계원 41명의 도장을 보관했던 정씨는 개최하지도 않은 회의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영광군에 어촌계 소유 해조류 양식 어업권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해당 양식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고흥 지역 모 어촌계는 정씨에게 어촌계 공동발전기금으로 1억5000만원을 줬지만, 정씨는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씨 마을 어촌계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기름 유출로 피해를 본 어촌계원들의 보상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부당하게 보상금을 타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강운태 전 시장 항소심 점유 2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악회 관계자 10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의 범죄 사실 중 기부행위와 관련, “(연인원 6000여명 중) 남구 주민이 아닌 인원도 포함돼 있다. 이 중 1903명만을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확한 금액도 산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 전 시장은 구속 7개월여 만인 지난 달 중순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정욱기자 jwpark@

토지, 6256평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1번지 외 6필지
- 토지 6256평 / 계획관리지역
- 매매 - 16억
- 건물 256평, 현재 양어장 운영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구례, 산동면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예산)
- 감정/시세 - 15억
- 대출 - 8억 (4.65%)
- 매매 - 협의
- 동업 - 운영하실 분
- 법인체 인수 가능
- 직매 H. 010-3605-5000